

25년 1월 13일,
퇴직연금 문안 편지

25년도 퇴직연금 고객들께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25년에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광화문에서, 저희 크루들이 있는 센트럴지점으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과 같은 기분에 새해 첫 출발은 상쾌한 편입니다.

25년도, 자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 중 하나는, 과연, 한국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상법이 개정될 것인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일단, 최소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변경은 확실하고, 상법개정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대주주, 즉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투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일반 주주들에게, 좋은 자세를 가지지 못할 경우, 투자의 매력은 그야말로 반감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실상이 되고 있고 저평가의 가장 강력한 원인입니다.

리턴이 보장 안된 곳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한국은 현재, 운 좋게 주가가 상승하는 것 외에, 회사가 알아서 주주에게 돌려주는 부분이 너무 약해져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 꾸준히 제기한 것처럼, 한국 자본 시장의 매력을 감소시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안되고, 한국 전체 자본/산업시장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법개정은 한국 경제 전체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토록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만약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매우 큰 폭의 디스카운트 해소 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진행될 경우, 우리는 2002~2007년 이후 가장 장기의 강세 흐름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 포트의 변화를 시도해도 괜찮은 시점에 온 것 같아, 작년 9월 이후 유지하던, 일부 보유비중의 변화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25년 1월 13일,
퇴직연금 문안 편지

기존 제안 드렸던 포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금융 예금 : 30%
2. 반도체ETF : 20~40%
3. 은행 ETF : 10~20%
4. 증권 ETF : 10~25%
5. 건설 ETF 탐색 및 : 2.5~5%
6. 펀드 : 베어링 고배당

기존 제안 드렸던 포트에서 일부 변경을 시도합니다.

1. 증권금융 예금 : 30%
2. 반도체ETF : 20~40%
3. 은행 ETF : 10~20%
4. 증권 ETF : 10~25%
5. 지주사 ETF : 5%~15%
6. 펀드 : 베어링 고배당

지난번 포트에서 **건설ETF**를 제외하였습니다. 9월이후 하락후 반등하고 있고,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접근할 시간은 충분한 것으로 여겨지고,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경우에 다시금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25년 들어, 기대하던 반등과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이후 가장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도, 가격적으로 부담은 없고, 작년 11~12월에 걸쳐, 많은 구성종목들이 큰 폭 하락했기에, 반등의 여지는 여전히 있다는 판단입니다.

은행 ETF는 작년 12월 급격한 가격 하락을 겪으면서 오히려 가격 매력이 좀 발생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1년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거라는 판단입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밸류업의 중심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증권 ETF의 경우, 여전히 제대로된 시세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보유관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 물론, 23년에 비해서 24년,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상당폭 거두어 주어, 우리에게 있어 효자 품목이긴 하지만, 아직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20년 이상의 장기 시계열을 볼 때, 여전히 가격 매력이 큰 금융ETF중 하나입니다.

25년 1월 13일,
퇴직연금 문안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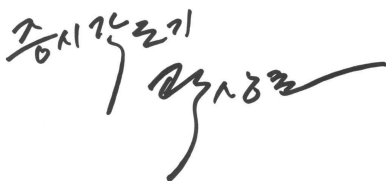
지주사ETF는 '이사들의 주주충실 의무'에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지주사들은, 자회사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sk는 최근 주가가 하락해서, 10조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k 지주를 거두어들일수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만) 그 밑으로,
sk이노베이션, 텔레콤,하이닉스, 온, 증권 등등 수많은 회사가 달려오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현재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년도, 퇴직연금쪽의 자산들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주식을 보시면서, '에게 겨우'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이런 정도면, 그런대로
장기 운용하는 상품으로는 봐줄만은 하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한국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폭이 컸다는 측면에서 보면 선방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겠습니다.

25년도, 새해에 더욱 발전하는 운용을 할 수 있길 소망하고, 함께 하시는 고객분들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수 있길 소망하며, 저희는 저희 고객들의 '자유를 지지한다!'라는
말씀을, 선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25년 한해가 되길, 또 옆에서 그것을 저희가 잘 보좌하길 소망하며,
25년도 첫번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13일.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각도기 광상준 올림.